

보도자료

일자: 2011년 4월 25일 (월)

장인의 혼이 담긴 혼마골프, 갤러리 오픈해 국내 마케팅 강화

- 한국지점 설립에 이어 혼마 갤러리 오픈, 고객만족도 최대화 할 전망
- KLPGA 유소연 프로와 클럽 후원 계약 맺으며 더욱 활발한 마케팅 기대

세계적인 명품 골프클럽 브랜드 혼마골프(대표이사 니시타니 코지)에서 4월 25일 강남 대치동에 혼마골프 한국지점 직영점인 'HONMA Gallery'를 오픈했다.

지난 3월 4일 한국지점을 설립하며 정식으로 한국에 상륙한 혼마골프는 이번 강남 혼마 갤러리 오픈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시작한다. 수입 총판이었던 기존의 형태와 달리 본 지점을 통해 A/S, 프로모션 등의 고객 서비스를 한층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갤러리 내에서는 신제품들을 전시함과 동시에 제품으로 시타를 해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한 한국 골프의 명성에 걸맞게 일본에서 골프클럽 장인이 손수 제작한 최고의 '명품' 골프클럽을 국내 골프 팬들에게 선보이겠다는 각오이다.

혼마골프의 니시타니 코지 대표이사는 "숙련된 장인이 몇 백 단계의 제조 공정을 통해 한 채 한 채 수공업으로 제작한 명품 클럽인 만큼 품질 면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한다. 이번 갤러리 오픈을 통해 그 동안 번거로웠던 A/S 등 서비스 품질 또한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내 시장에 자리매김하고 싶다" 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혼마골프는 고객들과 판매 대리점들에 대한 서비스 강화와 더불어 한국 프로골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선수 후원에도 적극 나선다.

지난 2009년 프로 2년차 시절에 혼마와 후원계약을 맺었던 KLPGA의 스타 선수인 유소연(21, 한화) 프로와 다시 한번 클럽 후원 계약을 맺게 되었다. 혼마 골프클럽과 함께 국내에서만 아니라 해외 무대에서도 활약해, 한국 여자프로

골프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일조하고자 하는 바람에서이다. 또한 이 밖에도 올해 김종덕(50), 김미현(34, KT), 홍진주(28, BC 카드), 강지민(31) 선수와도 용품계약을 체결했다.

프로골퍼들이 전세계적으로 활약하고 있고, 일반 골프 팬들 또한 프로 못지 않게 식견이 높은 국내 시장에서 혼마골프가 명실공히 명품클럽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회사소개>

「혼마골프는 일본의 야마가타현 사카타시에 약 16 만㎡에 미치는 광대한 부지의 제조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50 년 역사를 자랑하는 골프 클럽 메이커입니다. 클럽 하나 하나에 400 여명의 장인들의 기술이 구석 구석까지 묻어있으며, 장인의 집념과 기술이 응축 된 최고의 클럽만을 고집합니다. 최고의 클럽을 원하는 고객의 니즈에 최대한 부응하는 것을 목표로 전 사원은 원활한 정보 교환과, 개발에서 제품화가 되기까지 스피디하게 모든 공정의 퀄리티 향상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 문의 -

주식회사 혼마골프 한국지점

영업/마케팅 김성남 본부장

02)2140-1802

010-5095-8872